

글=양근만기자 study@chosun.com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사진=이명원기자 mwlee@chosun.com
 입력 : 2006.05.19 23:30 / 수정 : 2006.05.19 23: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5/19/2006051970613.html

[조선인터뷰] 개교 20주년 포스텍(포항공대) 박찬모 총장

포항공대가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는다. 1987년 신입생 249명으로 단출하게 출발했지만 어느덧 ‘국내 최고 공대(工大)’라는 수식어가 관용어처럼 따라다닌다. 이 학교는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올해 초 학교명 약칭을 ‘포스텍(POSTECH)’으로 통일했다.

포스텍 동문과 가족 1500명은 20일 ‘홈커밍 데이’ 행사를 연다. 원래 생일이 12월 3일이지만 포스텍은 지난 4월부터 대대적인 자축행사를 벌여왔다. 4월 29일 마라톤, 4월 14일 ‘포스테키안’ 행사, 4월 10일 ‘포스텍 비전 2020 선포식’에 이어 네 번째다. ‘포스테키안’은 포스텍 출신을 일컫는 말. ‘비전 2020’은 2020년 세계 20위권의 대학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포스텍은 지금까지 학사·석사·박사 1만여 명을 배출했다. 국내외 강단에 선 교수도 250여 명에 달한다. 92학번(산업공학과) 손영준씨의 경우 26세이던 2000년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최연소 교수가 됐다.

기업체에서도 포스텍 출신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졸업생 절반 정도가 포스코, 삼성, 현대, LG, 대우 등 6대 그룹에 진출했다. 포스텍 박사 1호 이도영(컴퓨터공학) 박사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상무가 됐다. 벤처기업에서도 포스텍 출신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창업열풍을 주도하는 포스테키안은 줄잡아 400~500명에 이른다.

박찬모(71) 총장은 현재 940명의 교수와 연구원, 대학원생을 포함해 2900여 명의 학생들을 이끄는 포스텍의 사령탑이다. 그를 통해 포스텍의 미래를 들어봤다.

—2020년 포스텍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기초과학 중심의 칼텍(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응용과학이 앞선 MIT(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를 합친 포스텍만의 고유모델로 거듭날 것이다.”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나?

“포스텍은 출발할 때 칼텍을 모델로 삼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과학 위주로 연구했다. 앞으



박찬모 총장

로는 산업적으로도 임팩트가 큰 연구업적을 많이 내야 한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절반 정도씩 어우러지는 대학으로 만들려고 한다.”

박 총장은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란 용어를 썼다. 기존의 '연구 개발' 개념에 비즈니스를 강조한 것이다. 포스텍은 연구성과를 기업화시킨다는 방침 아래 5월 초 학교기업 1호를 출범시켰다. 박준원(화학과) 교수의 'NSB(NanoSurface Bioscience)'다. 이 회사는 유전자 칩 기술을 의료사업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포스텍은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매년 10개씩 발굴해 건당 5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로열티 수입을 지난해 3억 원에서 2020년에는 97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4년 뒤 세계 20위권 도약이 가능할까?

“포스텍은 지금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이다. 세계적으로 50~60위권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 더 타임스 등 평가기관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대학과 비교해 가장 뒤떨어진 점은 뭔가?

“현재 포스텍엔 한국인 교수가 대다수다. 세계적인 석학을 더 많이 모셔와야 한다. 철강대학원에는 이미 두 명이 와 있는데 월급을 2~3배나 줘야 한다. 학교 예산도 적어도 현재의 연간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확충돼야 한다.”

포스텍 대학본부 앞에는 노벨동산이 있다. 서른네 그루의 나무들은 포스텍을 방문한 노벨상 수상자와 수확분야 노벨상으로 꼽히는 필즈상 수상자들이 방문기념으로 심어놓은 것으로, 학생들에게 '노벨상과 필즈상에 도전하라'고 자극하고 있다. “노벨상과 필즈상 수상자가 언제쯤 나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박 총장은 “앞으로 우리 대학 출신이 심은 나무가 노벨동산을 채웠으면 좋겠다”면서 “2020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수 평가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까지는 강의평가 내용을 학과 내 교수끼리만 공유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교수에게, 내년부터는 학생들에게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게 된 것이다.”

-교수 평가가 연봉에도 영향을 미치나?

“성과급 차이도 지난해엔 최고 4.1배였으나, 올해엔 7배, 2007년엔 9배 등으로 확대할 것이다. 정년보장 요건도 강화된다. 올 2학기부터는 해당 분야 세계 20위권 이내 수준인 권위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사이언스 등 주요 논문당 피인용 횟수를 현재의 6회에서 2020년에는 15회로 확대해 세계적인 대학(칼텍 18.9회) 수준에 근접시킬 계획이다.”

-학부 입학생이 계속 300명인데 늘릴 계획은 없는지.

“전혀 없다. 그런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포항공대가 이만큼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수정예의 연구중심대학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강화하는 비전을 발표했는데.

“전국 상위 1%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과학기술계 최상위 0.1% 핵심인재로 배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공중심의 교육을 했으나 앞으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경영마인드, 글로벌 리더십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입시 등 대학 자율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학은 자율이 핵심이다.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논리에 따라 정책이 자꾸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정부는 세계적인 대학 10여 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왜 안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

-다른 전공 간 협력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예를 들어 IT(정보기술)와 BT(바이오통계학)·NT(나노기술) 연구를 함께 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학부생들이 자기 전공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졸업학점도 141점에서 121학점으로 줄였다. 다른 부전공 등을 다양하게 접해보라는 것이다.”

-최근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포스텍 봉사단을 만들었는데.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보듯 과학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학교 구성원이 국가와 사회, 인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봉사단은 대학의 인적자원과 물질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포스텍은 작년 가을부터 2개 학과에 동시에 소속시키는 겸임교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4명의 교수가 2개 학과로부터 절반씩 평가받는 겸임교수로 있다. 화공과 교수인 동시에 환경공학부 교수인 남인식(南寅植) 부총장은 “2개 분야를 연구하는 게 부담이지만 학문 분야별 장르가 깨지는 추세는 갈수록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뒤통자치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찬모 총장은...

박찬모 총장은 요즘도 소주 1병 이상을 거뜬히 마신다. 폭탄주도 마다 않는다. 늘 웃는 표정에 유머도 뛰어난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한다. 경기고를 수석 졸업한 박 총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석·박사를 한 뒤 교수로 재직했다. 포스텍 초대 총장을 지낸 김호길(1994년 작고) 박사와 한국에서 좋은 대학이 설립되면 함께 일하자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0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1990년 포스텍 교수로 부임했다. 그는 늘 “통일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통일IT포럼 초대회장을 지냈고, 지난 4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크게](#) [작게](#) [프린트](#) [닫기](#)